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구원에 관한 기초

제 2 과

이전에 공부한 내용 복습

제 1 과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사물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너무나도 거짓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아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렘 17:9).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물을 보시는 방식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방식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 대답을 할 것입니다(롬 14:12). 우리가 한 모든 일, 우리가 한 모든 말, 우리가 한 모든 생각에 대해 회계보고를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롬 2:2).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요 17:17).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갈 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

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매뉴얼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하나로 엮여지게 되었나를 보고서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 자신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자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 개의 율법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율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 복종, 공경과 존경을 바치면서 우리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로, 우리 자신의 방향을 따라, 우리 자신의 일을 하면서 우리 삶을 삽니다.

2.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들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자기 마음 속에 신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신이 어떠한지 결정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친절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죄를 눈감아주는 신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는 신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면

좋겠다고 마음 속으로 당신이 결정하는 때가 있으면, 둘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3.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여기에는 저주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헛되이란 말은 빈 상태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다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볍게 취급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취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시간-매 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오늘 하루 계획된 일정이 있지만, 교회에서 견디는 이 시간 말고는 하나님과의 일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교회에서 앉아 있는 시간조차도 수만 가지 다른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받으셔야 마땅한 공경조차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5.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평생 부모님을 공경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부모님을 완전하게 존중하면서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 속으로 부모님께 잘못된 감정을 결코 가진 적이 없이 살아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니까?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대로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너는 살인하지 말라.

우리들은 대부분 아무도 살인한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네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것은 살인과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인한 자입니다. 이것이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7. 너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리적 행동뿐 아니라 그릇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는 것이 됩니다.

8.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훔치면 도둑질한 것에 해당됩니다.

9.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 너는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당신 존재를 온통 소모할 정도로 무엇을 원하면서 강렬하게 욕심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보는 대로, 우리는 유죄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미진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아 넘겨 주실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약 2:10**에서는 사람이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요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모두를 전 생애 내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오늘날까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시간이 끝나는 때까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며 정죄받았습니다.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첫째 공부 마지막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실 때 사람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해서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 한 쪽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쪽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그룹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잃어 버림

첫째 용어는 **잃어 버림**이며 **눅 19:10**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_____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절에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잃어버린 것을 **찾**___, 발견하고, **구**___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잃어 버림이란 용어는 상당히 흥미있는 용어입니다. 잃어버린다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족이나, 부모나, 아이를 잃는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때는 무언가 매우 비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께 유죄인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보신다고 성

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온 길을 표시하지 않고 숲 속으로 들어간 아이가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숲을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희망도 없이 수천 헥타아르나 되는 드넓은 열대 우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용어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말이죠. 만약 당신이 길을 잃으면,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잃으면 돌아 나올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잃으면 당신이 처한 처지, 즉 **잃어 버려진 처지**에서 벗어나도록(**구출되도록**) 와서 도와줄 누군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이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와 같이 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 구원받음 (구출됨)

그러나 연관된 용어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음(구출됨)**입니다. **롬 10:13**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_____을 받으리라.**"

"구원받음"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침례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구원받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목 뒤의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 제게 든 생각은 이랬습니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뭐야?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 다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듯이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으며 정말로 제가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신 그날 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도 없고 도움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길을 모른 채 숲 한가운데에 있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아이가 숲 속에서 길을 잃었고 누군가가 자기를 구출하러 다가왔다면, 아이는 자기들 꼴이 어떤지를 가지고 까다롭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구출된다는 것이 기쁘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양 정기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배 밖으로 떨어졌는데 배는 계속 가고 있다고 해 봅시다. 당신은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상어 밥이 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바닷가까지는 너무 멀어서 헤엄쳐 갈 수도 없습니다. 며칠 후 보트 한 척이 다가와서 물속에 빠져 있는 당신을 보고 흰색 구명정을 당신에게 던져 줍니다. "미안하지만 흰색 구명정은 싫어요. 빨간색으로 주세요."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당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면 그게 뭐든 냉큼 붙잡을 것입니다. 왜죠? 당신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고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까요. 당신은 자신을 구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음"이란 말의 의미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과 저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단 한 조목만 어겨도 죄이며, 우리는 그 모두를 어긴 유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를 보실 때 잃어버린 자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출되려면, 그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의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구출된 상태로 태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날 때부터 구출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잃어버려진 상태로 태어났으며, 구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출된 사람이란 과거에는 위험 속에 처해 있었지만 거기에서 꺼내어진 사람입니다.

3. 불의함

살펴보려는 둘째 용어는 **불의함**입니다. **고전 6:9-10**에서 성경은 "_____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

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란 누구일까요? 하나님 눈에 바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불의하다**란 **바르지 않다(=의롭지 않다: 역자 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 삶의 품질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십계명**을 주의깊게 살펴본다면, 당신은 정직하게 말해서 결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평생에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홉째 계명**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시 58:3**에서 성경은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_____을 말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본성으로 이미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또한 이미 읽은 (**고전 6:9-10**)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요. 이거 아주 곤란하군요. 이 구절들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알아 봅시다.

속지 말라: 우리는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출석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외적으로 취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음행에는 마음의 죄, 성적 욕망, 잘못된 생각들이 포함됩니다. 이성인 누군가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성에 대해서도요?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는 대신, 자신의 상상에 따라서 신을 만들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야 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신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나: 간음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결혼한 이래, 당신의 배우자 외에 누군가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성인 누군가에 대해 잘못된 욕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화된 남자나: 우리 세대에는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위의 어디에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당신이 향하는 곳 어디에나 동성애가 있습니다.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두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열거해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들(계명들)을 범하는 자들은 유죄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롬 3:10 은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나는 저런 그룹에 속하지 않으니까 난 분명 괜찮아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말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의롭지 않으면, 그로 인해 당신은 불의하게 됩니

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 거기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의로움

그러나 **고전 4:11** 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_____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 쪽 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다른 쪽 편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의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의롭다"고 일컬어집니다. 한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았고, 하나님 눈에 비천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의로운 상태로 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기셨습니다.

롬 5:19 은 "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_____ 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롬 3:10** 은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롬 5:19** 은 의롭게 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한 번 더 살펴 보십시오. 그들은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밖에서 뭔가가, 무슨 능력이 그들에게 작용해서, 말 그대로 그들을 불의한 자들 쪽에서 들어 올려 의로운 자들 쪽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쪽으로 옮기도록 무슨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 온 두 가지 일들을 주목하십시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아무런 실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대열에서 집어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쪽으로 놓아집니다. 다시금, 그들을 위해 뭔가가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5. 용서받지 못함

이제 **롬 4:6-7** 에 나오는 셋째 용어를 살펴 봅시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_____ 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_____ 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인정하다(전가하다, 돌리다)라는 말은 "계좌에 놓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기 용어로서 무엇을 어떤 사람의 계좌에 부과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해(전가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며 그들이 행위를 해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7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법들 [죄들]을 **용서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분명, 결단코 그들의 생애에서 그들의 불법들이 **용서받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며 하나님께 잘못 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죄이며, 잃어버려진 상태이고, 불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서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와야 합니다.

가령 제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내려가서 내키는 대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아주 세게 쳤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저는 용서받았다고 선언하고는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제가 용서를 받으려면 제가 친 사람이 저를 용서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거야. 이제 괜찮아라고 내가 말하니까 이제 괜찮은 거야."라면서 어깨를 으쓱거리 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결코 없으면서 자기들이 괜찮다고 선언하면서 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십시오.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 용서받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엡 1:7** 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롬 4:6-7** 은 이 **용서받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용서받음은 죄를 덮는 것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용서받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당신이 잘못을 한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을 용서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그룹 또는 저 그룹-**용서받지 않은 그룹**이나 **용서받은 그룹**-중 한 그룹 속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그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면 모든 것이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따를 경우에만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잘 다루고 이용하려고만 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7.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표현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용어는 **롬 5:10**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_____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인 자들의 그룹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 불의한 자, 용서받지 않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보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원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앉아서 "나는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를 멸할 방도를 찾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대적하고자 하신다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실 것으로 당신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건 날 조롱하는 것이지. 네가 나의 천국에 오려 한다고?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했는데도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 보내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령 제가 가족을 데리고 당신 집에서 일주일쯤 머무르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당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말하기 시작했는데, 천박한 쥐에다 밴댕이 소갈머리며 거짓말쟁이니 속임수 사기꾼이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당신 귀에 들어갔을 때, 당신은 "목사님, 들어오세요. 당신들을 우리 집에 모시게 되어서 좋습니다. 우리 집의 무엇이든 당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하면서 당신 집 문을 활짝 열어 주겠습니까?

천만에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기분이 나빠서 즉시 초대를 취소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 이런 일로 당신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을 미워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미워하지만 죽고 나면 내가 그를 바꿔 놓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십니다.

8. 하나님과 화해함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에서 두 번 사용하시는 다른 용어-**화해함**-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다른 용어입니다. **골 1:21**에서도 이 용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해함**이란 "**서로 반목해 온 두 당사자들이 돌이켜 화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된 무슨 일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

를 할 필요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화해**는 우리 쪽에서 생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화해는 우리가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우리 바깥에서부터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내가 당신의 창문을 깨뜨렸고, 그래서 당신에게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서는 당신과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깨뜨린 창문을 변상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당신이 잘못된 대가를 내가 감당하지요. 당신의 잘못을 과거로 돌리고, 그 대가가 얼마이든지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는 단지 창문을 깨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큼니다. 우리 죄의 빛은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지불할 수 있는 빛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 빛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너무 많이 바라셔서 기꺼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

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죄 값을 기꺼이 치르고자 하십니까.

9. 정죄받음

요 3:18 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나
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잃어버려진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며, 용서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수이며, 정죄받은 상태입니다. 마치 이미 법정에서 재판석에 앉아 재판 절차를 거치고 증언도 모두 청취하고서는 판결봉을 탕탕탕 두드려서 우리에게 죄를 확정하고 사형 판결을 언도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를 보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변론을 해서 해결을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변론은 이미 다 청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은 유죄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유죄라고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내어 보내줄 말씀씨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삶,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 당신이 가졌던 천박한 모든 생각을 날낱이 아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관해 모두 아시며, 당신은 정죄받았다고 벌써 성경에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가령 당신을 심리해서 살인죄를 찾아 내었다고 합시다. 판사가 교수형 판결문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가서 가는 도중에 어찌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거리를 걸어 갈 때 느낌이 어떨까요? 죄의식을 느낄 것입니다. 순찰 중인 경찰차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겁을 하고는 부리나케 되돌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는 경찰이 보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눈에 띄는 순간 도망칠 태세를 하고 있겠죠. 누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하면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해서 그 사람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부당한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계속 달아나야 할 것이며, 살아 남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붙잡힐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은 끝장입니다. 하소연할 길도 없고 출구도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신은 끝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것이 당신이 지금 이 생애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대한 정죄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10. 의롭게 됨

연관된 단어가 **롬 5:1** 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_____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의롭게 된다는 법률용어로서 **정당하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법정에서 심리를 받아 정죄받고 판사가 벌금을 부과한다면, 당신은 벌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판사에게 가서 현금을 건네 줘서 그 벌금을 지불하면, 판사가 판결봉을 두드리고 당신은 그 방을 걸어 나옵니다. 당신의 벌금은 전액 지불되었고 당신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걸어 나와서 경찰을 보면 이젠 어떤 느낌일까요? 경찰이 당신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섭거나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동일한 범죄로 또다시 당신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법이 보는 앞에서 정당하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죄를 지은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당하다고 선언받은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가가 치뤄졌습니다. 따라서 법이 더 이상 당신을 쫓아 괴롭게 하거나, 당신을 지배하거나, 당신의 삶을 정죄

하지 않습니다. 벌금은 다 지불되었고 당신의 계좌는 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생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모두 바르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정죄받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벌은 이루어졌습니다. 정죄받은 자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11. 진노 아래

롬 5:9 에는 또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_____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롬 1:18 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표현하는 또다른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둔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진리를 억눌러 숨막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예배 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진리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집

사, 주일학교 교사, 교회 회원, 설교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진리를 억눌러서 당신의 삶에서 진리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리란 우리가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공부를 할 때 당신은 그 계명들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천능자 하나님의 바로 그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정죄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 채로 세상을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가 만사 오케이인 것처럼 돌아 다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설 때는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웃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

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서 당신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화가나서 당신을 보고 계시지만 당신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12. 받아 주심

엡 1:6 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은 "받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_____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쪽으로 옮겨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환영받는다, 나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받아질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받아집니까? 당신이 하는 뭔가에 따라서 받아집니까? 당신이 아주 친절하면 마침내 받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받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13. 지옥에서 영원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용어는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계 21:8 은 지옥에 있게 될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전화번호부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불호수는 지옥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전생애를 사는 사람들은 **길 잃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하며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정죄하셨으며** 그들을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지옥**이라고 부르는 한 장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짓말쟁이들도 가는 **불호수**입니다.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유죄가 되어 거기에 갑니다.

14. 천국에서 영원을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살전 4:16-17 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_____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들 중에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있도록 그분께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 아무리 많이 점프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존 글렌은 벌써 두 번이나 하늘에 다녀 왔습니다. 그러나 존 글렌은 우주선을 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큰 제트 비행기나 우주선을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만큼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기로 데려 가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자들만 데려 가실 것입니다.

결론

여태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잘못된 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진 상태이고, 불의하며, 용서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며, 정죄받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시작할 때 아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의 기초들

관계가 없음	관계가 있음
1. 잃어 버림 눅 19:10	1. 구출됨 롬 10:13
2. 불의함 고전 6:9-10 롬 3:10	2. 의로움 롬 5:19
3. 용서받지 못함 롬 4:6-8	3. 용서받음 엡 1:7
4. 원수임 롬 5:10	4. 화해함 골 1:20-22
5. 정죄받음 요 3:18	5. 의롭게 됨 롬 5:1,9
6. 진노 아래 롬 5:9, 1:18 롬 2:6	6. 받아 주심 엡 1:6
7. 지옥 계 21:8	7. 천국 살전 4:16-1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바뀌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사람이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출되고, 의롭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의롭게 되고, 받아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그들에게 천국의 집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를 바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바깥의 능력을 통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에서 배우게 되겠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자신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있는 상태로 옮겨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시도

자,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가지기 위해 뭔가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 사람이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잠 16:25**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_의 길들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란 우리가 충분히 선해짐으로써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의 나쁜 것들을 모두 보아 넘겨 주실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둔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길 가는 사람 열 명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선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포함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웃에게 잘해 주는 것 같은 **선행**을 시도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바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에게는 결코 없을 몇 안 되는 최고의 이웃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멋진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많은 선행을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자 시도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침례**를 받는다거나 **성경을 읽는 것** 같은 일들을 시도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사려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된 이런 일들 중에서 얼마는 보아 넘겨주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령 당신이 일급 살인죄로 법정에 고소되었다고 합시다. 판사가 판결문을 발표하기 전에 당신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대담하게 판사석 쪽으로 올라가서는 대답합니다. "예, 판사님. 잠깐만요. 제가

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5년 전의 일입니다. 저를 체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저는 모범 시민으로 살아 왔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이웃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도와 주었습니다. 집이 불타 버린 가족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돈을 기부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성경 읽기도 하기 시작했고, 성경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갑니다. 저는 돈을 축적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요. 저를 내보내 주신다면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자, 만약 판사가 "이거 정말 감동의 간증이군요! 당신을 석방해드려야 하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은 당신이 지은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보상할 만큼 충분히 선한 일들을 하셨군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 정신을 가진 판사라면 그 누구도 당신이 삶을 쇠했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석방시켜 주지 않을 것 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인죄를 저지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에게 당신이 이렇게 한 가지 청원을 더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판사님. 제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법정의 자비에 저를 맡깁니다. 저는 당신에게 대한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놀

랍고 친절하고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인지 들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만일 판사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가세요. 자유입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는 어떤 종류의 판사일까요? 그는 더 이상 판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이시기도 합니다.

당신과 제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은 상태이며, 바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쇠신하고 얼마간의 선행을 하는 것만으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국에 들여보내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1. 로마서 3:20

하나님께서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서는 로마서 3:20 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_____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_____ 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가령 살인을 한 이 사람이 판사 앞에 서서 "판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5 년 전에 살인을 한 이후로 이 땅에서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저는 세법의 모든 조항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세법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지키고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저는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로 걸어 갑니다. 노란 불일 때에 가지도 않아요. 운전할 때에도 노란 불이면 안 지나 갑니다. 저는 아주아주 조심합니다. 속도 제한이 60 이면, 속도계가 1 킬로미터 적게끔 59 로 갑니다. 판사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저는 법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법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유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들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는 것으로는 결코 죄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나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천국으로 가게끔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수 있도록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의 목적이 우리의 죄

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적으로 완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한 조목을 어기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어긴 유죄가 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당신과 제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2. 이사야 64:6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 _____ 누 _____ 같으며 우리는 다 앞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부정한 물건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들을 말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들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침례 받았고요 교회에 출석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선행도 합니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분명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일들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하십니다.

더러운 누더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데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더러운 누더기**란 마을 밖의 기둥 위에 걸려 있는 누더기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물이 나는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까 봐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밖 기둥 위에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부르는 누더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상처에서 진물이 나서 찡그린 얼굴로 와서는 그 누더기를 가지고 상처를 닦아 내고는 기둥 위에 걸어 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 누더기는 바람이 불어서 마르고, 비가 와서 얼마간 씻깁니다. 그런 다음 다른 나병 환자가 와서 그 누더기를 쥐고서 자기 상처를 닦습니다. 더러운 누더기란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닦는 데 쓰는 공동 누더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선행**, 당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교회의 일원이 되고, 출석하고, 헌금을 하고, 설교자가 되거나 주일

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행을 그만큼 꼼꼼하게 보십니다. 당신의 선행을 통하여 당신이 얻게 되는 유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고 역겨운 누더기** 같다고 보십니다. 여자분들께서는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식기 설거지 하는 데에 쓴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꿈에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천국에 들어 가려고 제안하는 방법이 정확히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럽고 역겨운 누더기**로 말입니다.

3. 디도서 3:5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__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쪽으로 결코 옮겨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선행으로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도 없고 또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4. 에베소서 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__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선행으로

써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시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즉 너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는 자랑하려고 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선행을 가지고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 조목만 어겨도 그 모두를 어겨 유죄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태까지 죄를 단 하나라도 지었다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 생애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선행들으로써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면서 천국으로 뿔내며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 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

그러나 희망 없이 떠나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없는 자들과 관계가 있는 자들의** 두 가지 그룹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데려가실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길로 내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그 길로 하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하며, 죄된 상태에 당신이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음 과에서는 당신을 관계가 없는 쪽에서 관계가 있는 쪽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